

낙상·저체온증 잇단 사고 ‘위험한 겨울산’

국립공원 5년간 안전사고 1149건…109건은 사망사고

무등산 지난해 겨울 낙상·실족 21건…결빙 구간 피해야

가정주부 A(여·50)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9시께 국립공원 무등산 등반길에 나섰다가 팔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영하권 날씨를 보인 이날 중머리재 인근 등산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자칫 생명마저 위협했다는 게 무등산 국립공원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2014년 12월 25일 오전에는 지리산을 등반하던 B(41)씨가 눈 속에 얹히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저녁 장터목 대피소에 묵기로 예약을 했지만 같은 날 오전 저체온으로 동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A씨는 영하 7~11도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 초겨울 복장으로 산을 올랐다가 변을 당했다.

최근 무등산·지리산·월출산 등 지역 국립공원 내에서 겨울철 산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산행을 피하고 방한장비를 충분히 갖춰야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강병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149건으로 이중 사망사고는 109건(9.5%)이다.

사망원인 중 60건(55%)은 심장돌연사였으며, 추락사 30건(27.5%), 익사 9건(8.2%) 순이었다. 동사도 3건(2.75%)이나 됐다.

특히 겨울철(12~2월) 사고(총 189건)만 살펴봤을 때 사망은 20건, 부상은 167건이었다.

무등산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2일 입석대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 2016년 1월 16일에는 지리산 배래봉 정상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추운 날씨에 산을 오르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망사고 외에 겨울철 부상 사고 원인은 대부분 낙상이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발생한 부상 사고는 1040건으로, 861건(82.8%)이 미끄러짐, 실족 등에 의한 골절 사고였다.

지난해 무등산국립공원 내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12월 발생한 사고 40건 중 21건이 낙상·실족에 의한 사고였다.

특히 전체 사고 중 13건이 겨울철(1~2월, 11~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대부분 무리하게 산을 오르다 발목을 접질렀거나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경우였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상습결빙구간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무등산은 원효광장부터 장불재까지 6km구간이

■국립공원 상습결빙구간

사무소명	위치	연장(km)
무등산	원효광장~장불재	6.0
월출산	구름다리~경포대능선삼거리	1.2
다도해	아영장~남포미술관 1봉	1.0
	백양사~약사암 입구	0.2
내장산 백암	약사암 입구~금강폭포	1.53
	운문암삼거리~운문암	0.2
	남창탐방지원센터~새재길입길	0.6
	갈바위~장터목	0.3
	로타리대피소 아래	0.1
지리산	삼정~벽소령	0.1
	의신~세석대피소	0.1
	백무동~장터목 구간	80m
	백무동~세석 구간	25m
	반선~화개재	3.5
	성삼재탐방지원센터~무녕기	1.5

며, 월출산은 구름다리~경포대 능선 삼거리 1.2km구간이다. 장성방면 내장산은 백양사~약사암 0.2km 구간, 운문암 삼거

리~운문암 0.2km 구간 등 4곳이다.

지리산은 구례군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2km구간, 노고단~반야봉 5.5km구간, 중산리~장터목 5.4km 구간, 뱀사골 반야봉~연하천 6km 구간 등 13곳이다.

이와 함께 지리산 상습결빙구간은 폭설 시 고립예상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지리산에서 눈으로 고립됐을 때는 장터목·피아골·노고단대피소 등으로 피신해야한다. 대피소 위치와 상습 결빙구간은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암릉·암벽 구간 산행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산행 전에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방한용품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일몰시간을 고려해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하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야생동물 먹이 주기

4일 광주시 북구청 환경과 직원들과 (사)자연보호중앙연맹 광주북구협의회원들이 생룡동 야산에서 겨울철 먹이를 찾지 못한 야생동물들을 위해 배추와 고구마 등을 뿌려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10대 女 피어 조건만남·절도 강요한 조폭 폭행에 협박까지

광주북부경찰, 20대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4일 여성 청소년을 유인해 가출하게 한 뒤 조건만남을 시키고 성매매 남성들의 금품을 흡수도록 종용한 혐의(실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류모(23)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3년 12월16일부터 2014년 4월까지 A(19·당시

15세)양과 광주, 부산 등에서 모델·원룸을 얻어 동거한 혐의다. 류씨는 또 지난 2014년 1월1일 A양에게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성매매 남성의 지갑에서 30만원을 훔치게 한 뒤 이를 쟁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류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A양에게 “사귀자”며 접근한 뒤 기출해 같이 살자고 유인했다. A양이 류씨를 따라 집을 나가자 A양의 부모는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서는 실종 정

소년을 보호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류씨는 A양에게 “같이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오빠를 믿고 해라. 너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매매 남성의 지갑을 훔쳐오도록 시켰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양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남성을 만났고 남성이 샤워를 할 때 금품을 훔쳐 지난 2014년 절도죄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때 류씨는 A양에게 “혼자 범행한 것처럼 진술하라”고 종용했다.

류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 A양이 다른 사건으로 경찰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체포에 나선 경찰은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달 28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던 류씨를 2시간의 대치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류씨가 조건만남을 10여차례 강요했다”는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또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노동착취, 성매매강요 등의 범죄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고수익 미끼 149명에 71억원 받아 먹튀

광주지검 2명 기소·1명 수배

광주지검 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성환)는 4일 미인가 FX마진거래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 위반·사기 등)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도주한 주변 C씨를 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금보장과 고정수입(투자금의

월 7~10%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투자자 149명으로부터 71억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 가운데 8억6000만원은 홍콩계 투자회사 계좌를 통해 FX 마진거래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배당금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시민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는 유사수신형 경제범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해해경, 극렬 저항 중국어선 2척 나포

중어선끼리 부딪쳐 1척 침수

단속함정에 충돌을 시도하며 격렬히 저항하던 불법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오전 9시 4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5km(어업협정선 안쪽 39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기동단대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60~80t급 중국어선 50여척을 발견, 검거에 나섰다.

당시 중국어선들은 단속요원들이 나포 중인 어선을 탈취할 목적으로 수척이 수차례 고의로 단속함정에 충돌하는 등 극렬하게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어선과 나포된 어선이 부딪쳐 나포어선이 침수하기도 했다. 침수된 어선의 선원 20여명은 해경에 구조돼 체포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공사현장 약점 잡아 갈취

사이비 기자 구속 기소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사항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갈취)로 사이비 기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성지역 5곳의 공사현장에서 5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군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살수차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기자 lucky@

인사 부당 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홀인원 속여 보험금 타낸 보험설계사 등 23명 무더기 적발



○…골프 홀인원(티샷 한 공이 한 번에 홀에 들어가는 것) 보험상품에 가입해 허위로 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서행.

○…4일 제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홀인원 축하비용 최대 500만원 보상 특약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가짜 홀인원 증명서와 축하비용 지출 영수증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50만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쟁전 A(48)씨와 보험설계사 B(여·54)씨 등 23명을 입건했다는 것.

○…이들은 제주도내 15개 골프장을 돌아다니며 홀인원 확인서를 위조해 보험사를 속여왔는데,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제주도내에서 최근 홀인원 보험금을 받은 95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승인내용 등을 추적한 끝에 사기 행각을 확인.

/연합뉴스

최고의 투자가치 / 자신있게 추천 /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북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411-10번지외 10필지 (월정 삼거리 코너, 구 월정초등학교 자리)

■ 대지 5843평, 건물 512평

■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 등등

■ 현재 관관농원/ 펜션/ 식당/ 캠핑장 운영중

■ 2차선 도로접, 삼거리 코너, 계곡등 최고의 위치

■ 연수원/ 수련원/ 요양(병)원/ 펜션/ 캠핑장 등등

모든 용도개발 가능

■ 시세 30억, 급매 20억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010-3605-5000